

# 朝鮮의 王室 茶處方(茶飲)의 運用

- 承政院日記의 내용을 중심으로 -

김종오, 오준호, 김남일

경희대학교 의학교실

## A Study on the Use of the Medicinal Tea in Chosun Dynasty

Jongoh Kim, Junho Oh, Namil Kim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treats with transitional development of medico-hygienical situation in district Yanbian along with the evolution in specific field of medicine. This work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shaping TKM identity as TCM embraces Chao medicine asserting it as one included in TCM. This research deals with themes of migration of Chao minorities to this territory and their medico-hygienical situation.

Lifted bans on immigration in late Qing dynasty with uncertainty of Korea(Chosun) triggered the immigration to this district. The flow was heavily strengthened under the influence of Westerners and Japanese imperialism into china which consequently provoked the ruin of Qing dynasty, the civil war between republicans and communist and the socio-political changes in Korea. As population growths, the establishment of hospitals and immigr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were also increased. Though this district is located in Chinese mainland the influence of Japanese was also relevant which lead to medical practice reflecting both sides. Mutual combination and influence of western(contemporary) medicine, TCM and TKM practices made the particularity of Chao medicine.

keywords : Yanbian, Medicine, Hygien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hao medicine

### I. 서 론

‘茶’는 물에서 우려내거나 끓여내는 마실거리를 뜻하는 보통명사이다. 뜨거운 물에 국화꽃을 우려내면 국화차, 생강을 끓여 내면 생강차, 찬물에 오미자를 우려내어도 오미자차가 된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식품분야와 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연구가 연구

과제를 전통음료에서 찾고 있으며,<sup>1)</sup> 의학적 효능을 한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sup>2)</sup> 때문에 음료들을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있어 한의학 연구자들은 더 발전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의학적인 차에 관한 한의계의 전문적인 연구는 전무하며 약차·건강차·전통차 등의 이름으로 의서에 기재된 약재의 효능을 열거하는 활용서가 몇몇 발견되

■ 접수 ▶ 2009년 10월 20일 수정 ▶ 2009년 11월 27일 채택 ▶ 2009년 12월 13일  
■ 교신저자 김남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의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5-5969 E-mail southkim@khu.ac.kr

1) 이혜정·오재복·배숙희, 「전통 과일 음청류의 역사적 고찰과 제조법의 표준화」, 『식품과학과 산업』, 2005:12.  
2) 신민자·최영진, 『임원십육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전통음료의 향약성 효과에 관한 고찰』, 『Journal of East Asian of Dietary Life』, 1998:8(2).

는데 그쳤다.

논자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이러한 차가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음료보다는 의학적인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원형을 의학서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임을 발견하여 이에 보고한다.

## 1. 연구 범위 및 방법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맡으면서 비서실의 기능을 했던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이다. 원래 건국 초부터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는 1623년(인조 1)부터 1910년(융희 4)까지 288년간의 기록 3,243책이 남아있으나<sup>3)</sup> 현재 DB에서 검색 가능한 부분은 더 적다.<sup>4)</sup> 『승정원일기』의 의학관련 자료는 『승정원일기』 전체 분량에 비례하여 매우 방대하여 연구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함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조선시대 왕실의료 연구가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sup>5)</sup> 『승정원일기』는 실록 편찬에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하나로 활용되었기 때문에<sup>6)</sup> 실록보다 매우 상세하다. 이와 같은 기록의 상세함은 의료기록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병의 증상이나, 처방명, 처방을 투여하게 된 이유, 예후까지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록이나 『일성록』보다는 『승정원일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인터넷 홈페이지의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DB)(<http://sjw.history.go.kr>)”를 이용하였다.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에서 “茶”라는 검색어는 차 처방을 가장 광범위하게 추출해 내기 위하여 선택하였으며,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차 처방과는 관련이 없는 茶時·茶禮·請茶·酒茶·喫茶·茶啖·茶煎을 배제하였다.<sup>7)</sup> 문헌이 진산화될 때 생길 수 있는 오·탈자 등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원문 이미지”를 활용하여 확인 작업을 병행 하였다.

## 2. 선행 연구

『승정원일기』를 이용한 조선시대 왕실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로 홍세영의 연구<sup>8)</sup>가 있다. 왕실의료의 치료법 중 내복약을 湯, 丸·膏制, 茶飲, 單方, 食治, 乳道의 6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茶飲은 가벼운 질환을 다스리거나 탕제의 효과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은 자주 사용된 만큼 다양한 질환에 처방되었고 탕제를 보조하는 것은 다음 활용의 이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의서에서의 차 처방의 쓰임은 매우 다양한데 ①단독으로 복용하는 경우, ②다른 처방과 함께 처방된 경우, ③환 산제를 복용하는데 용도로 사용된 경우, ④건강유지를 위해 장복하는 경우, ⑤음료로 마시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 방법이 개발된 것은 차 처방에 관한 지속된 연구의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승정원일기』에서 왕과 내의원 의원들 사이에서 茶飲은 “茶制型의 처방”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된다. 홍세영은 『『승정원일기』의 임상의학 기록 연구』<sup>9)</sup>에서 茶飲은 湯劑에 비하여 복용이 용이하고 치료효과 역시 뚜렷하여 탕제에 버금가는 빈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茶飲은 탕제에 비하여 복용이 용이하여 왕들이 평소의 증상조절이나 가벼운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자주 이용되었고, 목표로 삼은 증후에 대한 임상적인 치료효과 역시 뚜렷하여 탕제에 버금가는 빈도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승정원일기』에 茶飲에 대한 기사가 많기 때문에 茶飲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조선 왕실에서는 ‘○○茶’의 형태를 이름을 가진 차 처방을 ‘茶飲’으로 명명했으며,<sup>10)</sup> 이 茶飲-인동차, 삼차, 굴강차 등-들이 탕약에 버금가는 빈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용도가 단순·명확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민간의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茶飲은 다른 처방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3) 申炳周,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조선왕조실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4) 『승정원일기』의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인조 원년부터 정조 24년까지 178년(1623년~1800년)의 기록과 고종원년부터 5년(1864~1868)까지만 검색가능하다.

5) 홍세영, 『『승정원일기』의 임상의학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 申炳周, 上揭書.

7) DB의 배제 명령어 ‘!’를 사용하였다. 즉, 검색창에 “茶!茶時!茶禮!請茶!酒茶!喫茶!茶啖!茶煎”를 입력하였다.

8) 홍세영, 上揭書.

9) 홍세영, 上揭書. 내복 및 외용약을 나누면서 湯, 丸·膏制, 茶飲, 單方, 食治, 乳道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0) 『태평성해방』에는 ‘藥茶’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차 처방을 논할 때는 다음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 II. 조선의 왕실 茶飲의 일반적 특징

『승정원일기』의 숙종 42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8년 전(기축년)부터 사용한 약이 천여 첩이고 계사년(4년 후)이후에는 400여 첩인데 茶飲까지 고려하면 600여 첩이 된다...”<sup>11)</sup>

이는 茶飲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는 숙종대의 기록이다. 조선 왕실의료에서 茶飲은 효과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그 쓰임이 매우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다음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茶飲은 한약의 제형으로써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자.

### 1. 이름이 ○○茶의 형태를 가진 처방을 茶飲으로 인식함

탕약이 일반적으로 ○○湯인 것과 마찬가지로 茶飲은 대부분 이름의 끝에 茶자가 어미로 붙어 있다. 蓼茶,<sup>12)</sup> 금은화차,<sup>13)</sup> 상지차,<sup>14)</sup> 삼골차,<sup>15)</sup> 복령차,<sup>16)</sup> 山樞茶,<sup>17)</sup> 적소두차<sup>18)</sup> 등 많은 처방이 직접적으로 茶飲으로 지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한약 처방들은 五苓散, 八味地黃丸, 補中益氣湯 등과 같이 고유의 제형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이

름의 끝에 가지고 있다. 茶飲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명명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승정원일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예외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茶로 이름이 끝나지 않았는데 茶飲이라고 언급이 된 처방은 生脈散과 적소두탕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生脈散은 夏節茶飲이라하여 “여름에는 茶飲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문맥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赤小豆湯도 “입에 쓴 탕약이 아니라 차라리 다음으로 볼 수 있다”<sup>19)</sup>는 내용이었으므로 엄밀히 茶飲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sup>20)</sup>

### 2. 茶飲은 약방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藥임

일반적으로 茶飲을 처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의원 의원들이 入診을 하겠다는 계를 올린 후 입진하여 진찰을 한다.<sup>21)</sup> 入診 중에 처방이 정해지면 왕께 허락을 구하여 다음을 올린다.<sup>22)</sup> 入診시 처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방에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후에 처방을 啓로 올려 허락을 받았다.<sup>23)</sup> 이는 다른 탕약이나 환제 산제를 처방하는 과정과 동일하며 다음과 다른 약이 함께 처방되는 경우도 많다.

藥房에서 入診하지 않았는데도 왕이 명령하여 임의로 茶飲을 지어 올리게 하여 수시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英祖대에 몇몇 기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영조 자신이 의학에 대한 조예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였으며 왕의 건강과 복용하는 약에 민감한 약방의 입장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영조 원년에

11) 숙종 42년 윤3월 8일 (무진), “淵曰, 臣意, 己丑年, 今已八年矣. 八年前, 已有根柢, 合計己丑以後所用之藥, 則已過千餘貼, 而癸巳以後, 四百餘貼, 竝計茶飲, 則六百餘貼, 或補或瀉...”  
 12) 숙종 42년 3월 7일 (무술) “上曰, 口淡特甚因今日未能服藥, 茶飲之屬, 問之可也. 柳瑞曰, 頃者如許之因御蓼茶, 卽鎮定.  
 13) 영조 24년 6월 6일 (기미) 徵瑞曰, 所謂茶飲, 卽金銀花茶也, 似是極好.”  
 14) 숙종 40년 1월 18일 (경신) “頤命曰, 桑枝茶, 一時過用未安, 與他茶飲因數參的以進, 何如? 上曰, 唯.”  
 15) 영조 17년 11월 14일 (을해) “藥房口傳啓曰, 伏承問安之批, 有蓼橘茶劑入之命. 此雖茶飲, 臣等不可不率諸御醫入診, 更爲詳察後, 議定敢啓.”, 영조 18년 2월 13일 (계묘), “上曰, 茶飲何名? 應三曰, 蓼橘茶.”  
 16) 숙종 41년 1월 20일 (정사), “藥房口傳啓曰, …若是不苦口茶飲, 則可以進服云, 故臣等, 與諸御醫商議, 則皆以爲, 前進茯苓茶, 不無其效, 減錢數進御, 宜當云, 今方煎入, 而湯藥姑爲停進之意, 敢啓.”  
 17) 숙종 41년 2월 4일 (신미), “…且以山樞茶, 不必連進云, 湯劑煎入, 而茶飲, 自今日停進之意, 敢啓.”  
 18) 숙종 42년 1월 29일 (경신), “數行缺向來赤小豆茶, 便是茶飲, 進御時, 其味缺亦有所傳教.”

19) 숙종 42년 1월 2일 (계사), “浮氣漸滋, 大便又復堅實, 非他藥所可治, 此丸強進叶宜, 如不能進, 則赤小豆湯, 非苦口之湯藥, 便是茶飲, 間間進御, 宜矣.”  
 20) 효종 4년 5월 16일 (신사), “원본127책/달초본7책 (3/7) 1653년 “又啓曰, 卽者伏承聖批, 有生脈散, 亦爲劑入之教, 柳後聖等以爲, 此夏節茶飲, 不拘貼數之藥, 加入中去知母爲當云, 姑先劑入十貼之意, 敢啓. 答曰, 知道.”  
 21) 숙종 43년 7월 20일 (임신), “藥房口傳啓曰, 昨日湯藥, 不得進御. 今日臣等, 與諸醫入診, 詳察症候, 更議當進之茶飲宜當, 惶恐敢啓.”  
 22) “新年, 尙未入瞻清光, 所進茶飲, 亦不無變通之議, 今日與諸醫入診, 詳察症候後, 議定宜當, 敢此問安, 竝爲仰稟. 答曰, 知道. 口淡困惱, 姑無差勝之勢, 而煎熱之氣, 時時往來, 瘡處流汗不止, 而浮氣一樣矣.”  
 23) 숙종 43년 4월 4일 (무자), “三更五點, 藥房口傳啓曰, 諸醫皆以爲干橘茶, 和鹽進御, 則最爲清利膈間之效云. 竹瀝龍腦安神丸調進後, 呼吸不平之候, 雖有少減, 而卽今膈間, 猶不清快, 則此茶飲進服宜當, 卽爲煎入之意, 惶恐敢啓.”, 숙종 42년 4월 30일 (기미), “困惱特甚之候無減, 勿爲入診, 與諸醫, 議定茶飲宜矣.”

의원 鎭遠이 “옥색을 살펴보니 紅暈之氣가 있으니 이는 火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茶飮을 자주 올리는데 혹 갈증이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까? 茶飮은 醫官에게 물어 의논하여 병에 마땅하고 맛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간한다. 영조는 “다음은 매번 봄에 혹 갈증이 날 때가 있을 때 마실 뿐 많이 마시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다시 鎭遠이 “茶飮을 자주 올리면 어찌 助痰의 근심이 없겠습니까?”라고 묻자 대답을 않는다.<sup>24)</sup>

적어도 『승정원일기』에서 발견되는 茶飮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내용이며 다른 약들과 같은 진찰 과정을 통해 처방된다. 현대에 전통茶가 기호식품에 속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茶飮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다는 것은 의원 뿐 아니라 왕은 물론 신하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영조 2년 10월 10일 병조판서 趙道彬이 다음이 진상되는 것을 보고 渴候가 있는지 묻자 영조는 다음을 먹고 있지만 渴候 때문은 아니고 讀書時에 膈間에 隔痰이 있어서라고 대답한다.<sup>25)</sup> 조도빈과 영조 모두 茶飮은 병이 생겼을 때 복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제형은 湯劑에 속하지만 湯藥과 구별되어 사용되었음

앞서 언급했듯이 茶飮은 茶제제 한약 처방군의 이름이다. 『동의보감』에서는 “藥性에는 丸劑로 쓸 것이 있고, 散劑로 쓸 것이 있다. 물로 달여야 하는 것이 있고, 술에 축여 써야 하는 것이 있으며, 膏藥으로 써야 하는 것이 있다. 또한 하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탕이나 술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모두 그 약성에 따라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sup>26)</sup>고 제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약의 다양한 제형은 처방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즉 제형은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한약의 전통적인 제형은 약재를 물이나 술에 끓여낸 湯,

같이서 환약으로 빻은 丸, 끓여서 고아 만든 膏, 곱게 갈아서 만든 散 등이 대표적이다. 오랜 기간 처방의 종류가 늘어나고 새롭게 개발되면서 이러한 제형은 더욱더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茶飮도 탕제의 한 종류로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한약의 제형으로써 기존의 처방형태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탕약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다음을 사용<sup>27)</sup>하거나 탕제와 다음을 비교<sup>28)</sup>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탕약과 다음을 구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기준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 4. 임의로 조제하여 만들어 쓸 수 있는 처방임

차 처방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半夏·茯苓·生薑, 湯煎作茶” 또는 “人蔘二兩, 入大棗十枚, 生羌(生薑)一片, 濃煎代茶兼進”, “天門冬作茶”, “山梔子五錢煎茶, 和薑汁少許”, “山查肉五錢, 神麴炒, 麥芽炒各一錢, 作茶.” 등과 같이 정해진 차 처방이 아니라도 임의로 차의 형태로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형태의 처방들은 이름이 “○○차”의 형태가 아니며 반복되어 쓰이기 어려웠으므로 엄밀히 차 처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처음에는 온전한 차 처방이 아니었지만 그 효과가 뛰어나 차 처방으로써 이름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 예로 금은화갈근차를 들 수 있다. 금은화갈근차는 말 그대로 금은화차와 갈근차를 합한 것이다.<sup>29)</sup> 이는 기존에 있었던 금은화차와 갈근차를 합방하여 새로운 차 처방을 만든 예이다.

다른 예로 소강차를 들 수 있다. 소강차는 처음에 “蘇葉

24) 영조 원년 1월 26일 (을축), “鎭遠, 進伏曰, 連日入侍, 瞻望玉色, 每有紅暈之氣, 此必有火而然. 且頻進茶飮, 或有渴候而然耶? 茶飮則問議於醫官, 擇其宜病味佳者進御, 似好矣. 上曰, 時時氣上, 故面有紅氣, 非有火也. 茶飮, 每當春節, 則或有引飮之時, 不至多飮, 何慮之有乎? 鎭遠曰, 頻進茶飮, 豈無助痰之慮乎? 上, 無答.”  
25) 영조 2년 10월 10일 (무진), “道彬曰, 俄見進茶飮, 或有渴候而然耶? 上曰, 時進茶飮, 非有渴候而然也. 讀書時, 膈間有隔痰, 飮茶則稍降, 故臨讀時, 或進茶飮矣.”  
26) 허준 외, 『대역동의보감』 「탕액편」, 동의보감출판사, 2005.

27) 영조 17년 4월 4일 (무술) 원본930책/탈초본50책 (25/31) 1741년, “但東宮, 方在沖年, 故藥道甚難, 欲清則易涼, 故難矣. 姑勿用湯劑, 金銀花茶, 沈無價散, 日進牛黃再巡, 則似好矣.”  
28) 영조 9년 4월 15일 (정묘) 원본759책/탈초본42책 (17/18) 1733년, “聖澄曰, 以脈候觀之, 微有感氣, 而元非大段, 湯藥則不宜用之, 以金銀花葛根茶, 進御宜矣. 上曰, 金銀花入葛根, 爲茶飮之乎? 聖澄曰, 或金銀花茶, 或葛根茶, 進御爲宜矣. 應三曰, 乾葛茶, 勝於金銀花茶矣.”  
29) 영조 8년 4월 11일 (무술), “聖澄曰, 以脈候觀之, 微有感氣, 而元非大段, 湯藥則不宜用之, 以金銀花葛根茶, 進御宜矣. 上曰, 金銀花入葛根, 爲茶飮之乎? 聖澄曰, 或金銀花茶, 或葛根茶, 進御爲宜矣. 應三曰, 乾葛茶, 勝於金銀花茶矣. 上曰, 日氣漸溫, 則感氣自和解矣. 金銀花葛根茶, 亦不必用之, 數日內, 自當愈矣. 致中曰, 感氣雖非大段, 既未即和解, 以此茶進御, 無妨矣.”

과 生薑 各三錢으로 차를 만든다.”라는 언급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煩悶之候가 있을 때 蘇薑茶를 올린다”고 하여 소강차가 차 처방으로 계속 쓰인다. 소엽과 생강을 차제 형태로 만들어 쓰기 시작해서 차 처방이 만들어진 것이다.<sup>30)</sup>

## 5. 복용시간과 복용량에 제한이 적어 수시로 복용하는 처방임

茶飲의 복용 방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복용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자주 복용하는 것이다. 다음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다음은 시시로 올린다(茶飲時時進之).”<sup>31)</sup>, “자주자주 다음을 올린다(頻頻進茶飲).”<sup>32)</sup> 등의 표현이 자주 발견된다.

이에 비해 당약을 처방하는 경우 영조대의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하루 복용량은 1첩, 1회 복용이 기준이며, 증세가 심하거나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루에 두 번, 혹은 세 번으로 첩 수를 늘렸다.<sup>33)</sup> 湯藥을 처방할 때에는 되도록 첩 수를 줄이고 하루에 한 번을 기준으로 삼는 등 茶飲을 처방할 때와는 달리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다음 복용법은 茶飲을 다른 처방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게 된다. 그래서 茶飲이 아닌 다른 처방이 하루에 여러 번 복용이 가능할 경우에 “茶飲과 같으니 사이사이에 올림이 마땅하다(便是茶飲 間間進御 宜矣).”<sup>34)</sup> 거나 “茶飲의 類와 같아서 시간에 구애될 없이 올린다(則乃是茶飲之類, 不拘時進御爲當云).”<sup>35)</sup>,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茶飲을 대신한다(不拘時宜代茶飲云).”<sup>36)</sup>는 등의 표

현이 일상화 된다.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복용하기 때문에 茶飲은 湯藥보다 대량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진단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茶飲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桑枝茶의 경우 한 번에 과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다른 차와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sup>37)</sup>과 상지차는 下氣를 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sup>38)</sup>이 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은 조선시대 의학서적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弘齋全書에 따르면 흥격의 열[膈熱]에는 유익함이 실로 많지만 흥격에 熱이 없는 사람과 冷痰이 있는 사람은 마시면 안된다<sup>39)</sup>고 하였고 宜彙에는 痰入骨節을 치료할 때 상지차를 한 달의 한도 내에서 복용하라는 내용도 보인다.<sup>40)</sup>

忍冬茶는 발산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상으로 表虛한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 표기를 더욱 虛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sup>41)</sup>고 하였다. 또한 發散之聖藥이므로 忍冬茶를 과하게 사용하면 안된다<sup>42)</sup>는 내용도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茶飲은 다량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약재들로 구성된 다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茶飲은 오랫동안 다량으로 복용해도 괜찮다는 내용도 있다. 효종 4년 5월 16일 기사에 “생맥산은 하절의 茶飲과 같으니 첩 수에 구애되는 약이 아니다.”<sup>43)</sup>는 내용을 보면 茶飲은 복용량이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

30) “蘇葉·生薑各三錢作茶。 / 有煩悶之候, 故連爲進御蘇薑茶。 / 口味一樣, 玉音重濁, 近似少愈, 而耳部有聲, 清汁之出, 又復如前。”

31) 숙종 40년 1월 18일 (경신), “... 今姑停進, 以茶飲時時進之, 似好矣.”

32) 숙종 42년 9월 14일 (경오), “上曰, 以茶飲頻含, 潤其渴喉而吸之, 則快矣. ... 鎭厚曰, 頻頻進茶飲, 不亦有所妨乎? 上曰, 爲其潤喉, 不得不頻進矣.”

33) 홍세영, 상계서.

34) 숙종 42년 1월 2일 (계사), “浮氣漸滋, 大便又復堅實, 非他藥所可治, 此丸強進叶宜, 如不能進, 則赤小豆湯, 非苦口之湯藥, 便是茶飲, 間間進御, 宜矣.”

35) 인조 24년 5월 21일 (병인), “臣等與諸御醫及柳後聖等, 詳細商議, 則皆以爲牛黃三分和童便, 一日一進駝駱粥, 補脾養血, 亦當進御, 加入犀角地黃湯五貼, 今日當畢進御, 而尚未見效, 依前啓請五貼畢劑以進, 而五神湯則乃是茶飲之類, 不拘時進御爲當云. 依此劑進, 脈候則別單書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36) 현종 즉위년 5월 16일 (병자), “前劑入本方, 倍人蔘生脈散, 伏未審連進與否, 而當初諸醫皆以爲, 不拘時宜代茶飲云.”

37) 숙종 40년 1월 18일 (경신), “願命曰, 桑枝茶, 一時過用未安, 與他茶飲因數參的以進, 何如?”

38) 영조 즉위년 9월 5일 (을사), “大殿, 藥房口傳啓曰, 前進桑枝茶, 今日乃是劑入日次, 而醫女等皆以爲此乃下氣之劑, 不合進御於此時云.”

39) 弘齋全書 卷百七十八, 日得錄十八, 訓語[五] 桑枝茶 …… 但無膈熱者不可喫 況以石英水煎取者耶. 若以黃梅枝(俗所謂生薑木)兼用 則頗制涼味 然有冷痰者決不可喫 而有益於膈熱實多”, 弘齋全書는 正祖大王(1752~1800)의 詩文을 奎章閣에서 편찬하고 간행한 책이다

40) 宜彙, 卷之一, 痰飲, “痰入骨節 生桑枝炙去皮細切炒黃一升 小麥五合 水一升煎至小麥濃熟 每日飲三四次限一月.”

41)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1월 19일 (신미), “內傷則表必虛, 風寒易入, 風寒外襲, 則熱氣內鬱, 此所以爲寒熱往來之候也. 頻進忍冬茶, 則過於發散, 表氣益虛, 針之爲道, 有瀉而無補, 則是亦發散之類也.”

42)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9월 27일 (임신), “而必欲進御湯劑, 則無過於忍冬茶, 此是發散之聖藥矣.”

43) 효종 4년 5월 16일 (신사), “又啓曰, 卽者伏承聖批, 有生脈散, 亦爲劑入之教, 柳後聖等以爲, 此夏節茶飲, 不拘貼數之藥, 加入中去知母爲當云, 姑先劑入十貼之意, 敢啓. 答曰, 知道.”

### Ⅲ. 茶飲의 의학적 활용

#### 1. 渴症이 있을 경우 물이 아닌 茶飲을 마심

茶飲이 가장 많이 처방된 증상은 渴證이다. 앞 절의 趙道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신들이 왕께 茶飲이 자주 진상 되면 으레 갈증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짐작할 정도였다.<sup>44)</sup>

갈증은 조선시대에 아주 흔하면서도 세심한 관리를 요하는 증상으로 여겨졌다. 일례로 『증정원일기』에 기록된 消渴 기록의 대부분이 관직을 遞職과 환수를 청하는 계나 상소이다. 消渴이 그만큼 흔한 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病患을 이유로 관직을 사양할 경우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정도의 重症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조에서 성종대까지의 조선 전기 군왕들은 대부분 풍병, 消渴病, 중기, 이질을 알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up>45)</sup> 의관들은 왕이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처방들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煩渴, 引飲 또는 熏熱 등의 증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미리 의논하여 다음을 올리고 기다리게 하라.”<sup>46)</sup> 거나 “매번 번갈아 있을 때에는 茶飲을 왕께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사가 뿐 아니라 “갈을 치료하는 茶飲(治渴茶飲)”<sup>47)</sup>이라는 따로 부르기도 하였다.

茶飲은 갈증이 있을 때 단독으로 처방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湯藥이나 丸藥을 처방하면서 갈증을 겸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갈에 특히 많이 사용된 忍冬茶<sup>48)</sup>의 예를 들면 ‘煩熱’과 ‘薰熱’이 있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처방되며 대부분의 경우 牛黃 가루를 타거나 牛黃丸 등 다른 환·산제와 함께 복용하였다.<sup>49)</sup>

갈을 주치증으로 하는 茶飲의 종류는 매우 많다. 인동차

뿐만 아니라 五味茶, 오미자차, 상지차, 매화차, 마통차, 향유차, 맥문동차, 죽엽차 등이 그것이다.<sup>50)</sup>

#### 2. 목표하는 증상이 뚜렷할 경우에 茶飲을 사용함

갈증은 가장 많은 차 처방들의 치료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차 처방 전체가 갈증치료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차 처방은 매우 다양한 병증에 사용되었는데 金銀花茶는 止嗽茶飲之屬으로,<sup>51)</sup> 乾葛·蘇葉茶은 解表茶飲<sup>52)</sup>으로 분류되었고, 調補茶飲之屬<sup>53)</sup>이나 和解茶飲之屬<sup>54)</sup>을 올려야한다는 언급도 기록되어 있다.

#### 3. 병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나, 건강관리용으로 사용함

茶飲은 병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나 건강관리용으로 다양되었다. 영조 8년 4월 22일 기사를 보면 왕이 직접 “병이 중하지 않으니 먼저 다음을 조금씩 조금씩 복용하고자 한다(欲先試輕輕茶飲).”고 하자 의관이 “茶飲은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려우니 湯劑로 올릴 것을 청합니다(難以奏效, 宜進湯劑).”<sup>55)</sup>라고 대답한다. 즉, 다음은 湯劑보다는 약력이 적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茶飲은 약력이 부족하여 약도 아니라는 언급도 찾을 수 있다.<sup>56)</sup> 다음은 물론 약으로 사용되었지만 湯藥이 꼭 필요

44) 현종 원년 3월 12일 (정묘), “上再引茶飲. 壽恒曰, 煩渴之候, 今復爾耶? 上曰, 只沃喉而已.”

45) 金勳, 『조선시대 군왕의 질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7.

46) 숙종 40년 4월 22일 (계사), “上曰, 今日湯藥已進, 而今夜必熏熱煩渴, 預議當進之茶飲以待, 可也.”

47) 인조 17년 11월 5일 (무오), “每於煩渴時, 茶飲進御爲當云, 故敢此蒞稟.”

48) 承政院日記에 114회가 언급될 정도로 빈용 되었는데 숙종 때만 38회가 보인다.

49) 숙종 19년 2월 3일, “……而至於牛黃, 腫家之聖藥, 和忍冬茶……”, 숙종 26년 7월 16일, “……又有煩鬱之候, 忍冬茶調牛黃二分進御後……”, 숙종 41년 2월 11일, “……就寢時有熏熱, 忍冬茶, 調進牛黃膏三丸……”, 숙종 41년 3월 4일, “……罷漏後熏熱不止, 忍冬茶調進九味清心丸二丸云……. 등등의 예가 있다.

50) 현종 원년 2월 7일 (임진), “且煩渴時所進茶飲, 問諸諸醫, 則以爲麥門冬三錢, 烏梅肉五分, 作一貼, 和砂糖屑以進爲當云, 敢啓.”, 인조 18년 2월 13일 (갑자), “藥房啓曰, 臣等伏未審聖候煩渴之患, 比數日前, 何如? …崔得龍及諸御醫等, 皆以爲桑白皮·糯穀·旋炒各二錢, 麥門冬·天花粉各一錢, 五味子十五粒, 合作一貼爲茶飲, 名爲五味茶, 臨渴常進, 則其於清熱止渴之功, 其味平和, 所益爲多云. 此茶飲劑入試用, 何如? 答曰, 依啓. 渴症時無加減.”, 영조 2년 10월 10일 (무진), “道彬曰, 俄見進茶飲, 或有渴候而然耶? 上曰, 時進茶飲, 非有渴候而然也. 讀書時, 膈間有隔痰, 飲茶則稍降, 故臨讀時, 或進茶飲矣.”, 현종 원년 2월 7일 (임진) 원본160책/탈초본8책 (16/29) 1660년, “且煩渴時所進茶飲, 問諸諸醫, 則以爲麥門冬三錢, 烏梅肉五分, 作一貼, 和砂糖屑以進爲當云, 敢啓. 答曰, 依啓.”

51) 영조 4년 9월 19일 (병인).

52) 영조 4년 9월 22일 (기사).

53) 영조 4년 5월 15일 (을축).

54) 정조 14년 4월 4일 (갑인).

55) 영조 8년 4월 22일 (기유), “上曰, 欲先試輕輕茶飲. 問于首醫, 聖徵·應三齊對曰, 累日不解, 且有眩氣, 茶飲難以奏效, 宜進湯劑.”

56) “光佐曰, 小臣一言, 何能有無, 未知府夫人入來乎? 邸下必無所不用其極矣. 王世弟曰, 力不足矣. 雖坤聖所進藥, 便非藥也,

함을 전하기 위해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탕약을 복용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투여하기도 하였다. 의관들이 상의한 후 다음을 시험적으로 주기도 하였다.

#### IV. 결론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茶飲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된 茶飲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 ① 이름이 ○○茶의 형태를 가진 처방이었다.
  - ② 茶飲은 약방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藥이었다.
  - ③ 제형은 湯劑에 속하지만 湯藥과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 ④ 임의로 조제하여 만들어 쓸 수 있는 처방이었다.
  - ⑤ 복용시간과 복용량에 제한이 적어 수시로 복용하는 처방이다.
2. 茶飲의 의학적 활용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 ① 갈증이 있을 경우 물이 아닌 다음을 마셨다.
  - ② 목표하는 증상이 뚜렷할 경우에 다음을 사용하였다.
  - ③ 병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나, 건강관리용으로 사용하였다.
  - ④ 본초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처방되었다.
  - ⑤ 湯藥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茶飲을 다용하였다.
  - ⑥ 茶飲은 맛이 있었다. 적어도 탁하고 부담되지 않은 약이었다.

#### VI. 참고문헌

1. 이해정, 오재복, 배숙희, 「전통 과일 음청류의 역사적 고찰과 제조법의 표준화」, 『식품과학과 산업』, 2005:12.
2. 신민자, 최영진, 「임원십육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전통 음료의 향약성 효과에 관한 고찰」, 『Journal of East Asian of Dietary Life』, 1998:8(2).
3. 申炳周,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조

- 선왕조실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규장각』, 2001:24.
4. 홍세영, 『『승정원일기』의 임상의학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5. 김종오, 『『東醫寶鑑』에 나타난 茶의 의학적 운용』,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6.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남산당, 1998
7. 許浚, 『대역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8.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http://sjw.history.go.kr>>
9.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茶也. 進之無傷, 勸進而終不進.”